

장애자 올림픽 서울대회와 시설계획방향

박용환
한양대학교건축학과 교수

**Direction of the
Facilities Plan for the
'88 PARALYMPICS**
by Park, Yong Whan

① 정상인과 장애자와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에 약 4억5천만의 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총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300만명씩 증가추세에 있다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인구를 약 1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수준에 비해 비교적 저율이라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장애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자, 노약자들을 제외한 사회보장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로 장애자의 범위를 한정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그 바울이 훨씬 높으리라 예상된다.

최근에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비로소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정상인으로 부터의 「무관심」 「차별의식」이 장애인들이 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점은 현재 '86 아시안 게임'과 연이은 '88 서울올림픽 개최 등 국제스포츠 대회에 대한 열기가 국내외로 커다란 주목을 끌고 있고 일반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 반해 '88 서울올림픽이 끝나면 곧 개최될 예정인 '88 장애인 올림픽 서울대회'에 대해서는 그 개최사실조차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② "장애자와 스포츠"에 대한 기원은 기원전 약 3 백년경부터 비롯되어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근대 의료스포츠가 과학적으로 발전해왔다. 문예부흥기 이후부터는 오래전부터 독일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환자의 기능회복을 지도하였으며, 1880년 영국에서는 하지절단자를 위한 최초의 신체장애자 스포츠대회가 개최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기 시작하다가 2 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에 영국의 Guttman 박사에 의해 "스포츠 대회"로 조직화되기에 이르렀다. 세계신체장애자 스포츠대회(일명 Stocke Mandeville Game)는 척수의 손상으로 인해 마비된 중도(重度)의 신체장애자들에게 휠체어를 사용하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중도신체장애자가 과거와 같이 죽음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체에 남아 있는 잔유기능을 훈련하여 사회복귀(Rehabilitation)의 길을 마련해 주고 나아가 세계의 장애자가 이러한 스포츠를 통해 서로 어울려 진정한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을 발휘함으로써 상호간에 희망과 격려를, 그리고 우정과 이해로써 보다 크게 사회에 공헌하도록 한다는 기본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조직된 이 대회는 스포츠가 단순히 하나의 치료 수단만이 아니라는 점을 세계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올해로 35회째를 맞게 될 이 대회는 매년 개최되어 오다가 1952년 처음으로 국제대회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60년 로마올림픽 대회부터는 올림픽 개최국에서 장애인올림픽을 함께 개최토록 규정하기에 이른다.

한편 그동안 대회의 성격이 올림픽 대회로까지 발전하는 동안에 1972년 하이델베르그대회까지는 척추장애자만 참가하던 것이 1976년 캐나다의 토론토 대회때부터 척추장애자 이외에 사지절단, 시각장애자가 추가되었다. 1980년 소련 올림픽대회 때에는 대회개최의 철회로 말미암아 네덜란드 안함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때에는 다시 뇌성마비자까지 참가하게 되어 그 규모나 장애유형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적 스포츠 대회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앞서의 네가지 유형의 장애인경기 기구를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1982년에 ICC(세계 장애인스포츠기구 국제조정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따라서 1984년 미국 뉴욕주의 올림픽대회는 ICC결성 이후

New York 장애인올림픽대회 주경기장에서 트랙경기장경.



최초의 4개 경기기구의 통합대회이긴 하였으나 척추장애자 경기단은 영국에서 따로 개최됨으로써 '88 서울장애자올림픽 대회가 ICC결성 이후 전장애자 경기가 동일개최지에서 거행되는 최초의 세계 스포츠대회가 될 것이다.

한편, 장애자올림픽을 통칭 파라림픽(Paralympic)으로 말하는 것은 1984년 일본의 동경대회때 생겨난 애칭으로서, 그것은 Paraplegia의 Para와 Olympic의 Lympic을 합친 합성어이며,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스포츠대회가 최초에는 하반신 불구의 장애자만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전신장애자의 국제적 스포츠 경기대회로서 보다 널리 일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원래 이 대회와 올림픽대회와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으나, 1956년 올림픽 운동에 대한 공적으로 수여되는 「팜리-컵(Fearnley-Cup)」이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이 스포츠대회에 수여됨으로써,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이 단체를 이념과 목표가 동일한 단체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해에는 장애자올림픽 또한 같은 장소, 같은 시설을 사용하며, 오륜기를 게양하는 것 등에서 양대회의 관계가 매우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3] '88 장애자올림픽에 관련하여 최근의 주요장애자스포츠대회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금년에 35회째를 맞이하는 영국의 「Stockemandeville Game」, 지난 84년의 「New York 장애자올림픽 대회」, '85년의 제21회 일본 「전국신체장애자 체육대회」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International Stocke Mandeville Game

이 대회는 1948년에 시작하여 작년까지 34회의 대회기간을 거쳐오면서, 그 동안 참가인원, 참가국, 경기종목 등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매년 동일한 장소에서 대회가 치루어지고 있으며 '85년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13개국으로부터 6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사격, 양궁, 육상, 농구, 보울링, 펜싱, 당구, 수영, 탁구, 역도, 마라톤, 5종경기 등 12개 종목에 걸쳐 경기가 진행되었다. Stocke Mandeville Sports Center를 주경기장으로 하고, 그 외에 3곳의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였는 바, 경기장별로 간단히 스케치하면 다음과 같다.

● 수영경기 - 전광판 혹은 touch pad 시설이나 건축적으로 특별한 설비나 시설이

거의 없는 길이 25m, 폭 6 lane의 극히 일반적인 소규모의 풀로서 25m 경기가 실시되었다.

● 당구경기 - 실내체육관의 농구경기장 부속실을 전용 당구장으로 활용하였는데, 실내는 마치 암실과 같은 분위기로서 4대의 당구대를 설치하고 집중조명시설을 당구대 위에 하였다.

● 탁구경기 - 개폐식 스텐드(관중석)가 설치되어 있는 중급규모의 에일즈버리 시민회관의 강당에 탁구대를 10대 설치하여 경기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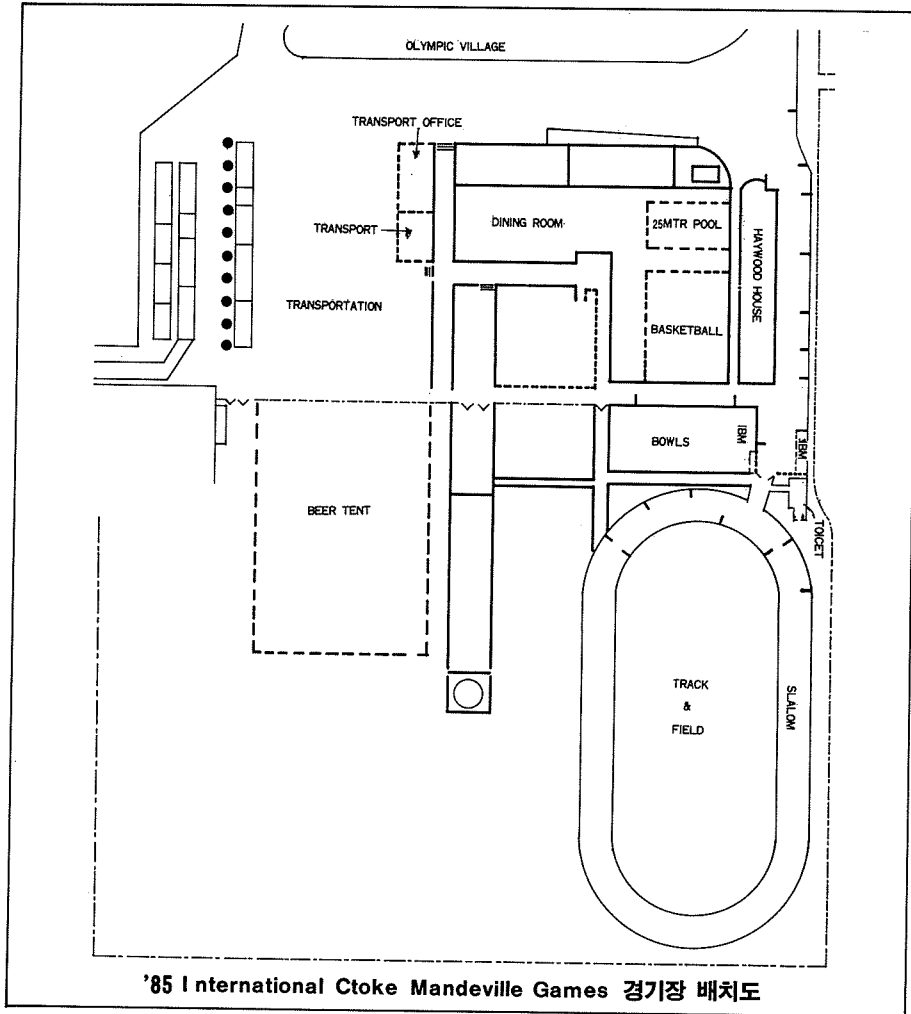
● 역도경기 - 탁구경기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졌으며, 아직 국내에는 보급되지 않고 있는 높이의 조정이 가능한 벤치(Adjustable Bench)를 설치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 외에 국제역도경기연맹(IWF)에서 규정하는 제반 부대시설을 갖추었다.

● 양궁경기 - 에일즈버리 그라마 스킨의 럭비경기장에서 실시되었으며, 경기장 전체에 잔디가 심어져 있고 14개의 양궁 타겟이 설치되었다. 경기장 후면에는 좌식벤치와 세면기를 갖춘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역시 간이로 설치한 LPG 순간연수 시설에 의해 항상 더운 물을 공급하고 있었다.

● 농구경기 - 실내체육관의 농구경기장을 활용하였으며 약 4백석의 관중석과 체육관 전용 전광판 1개가 설치되어

역대 장애자 올림픽대회 현황

구 분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제 4 회	제 5 회	제 6 회	제 7 회		제 8 회
개최연도 및 시기	1960. 9. 18~ 9. 24 (7일간)	1964. 11. 8~ 11. 12 (5일간)	1968. 11. 5~ 11. 12 (8일간)	1972. 8. 2~ 8. 10 (9일간)	1976. 8. 3~ 8. 11 (9일간)	1980. 6. 21~ 7. 5 (15일간)	1984. 6. 16~ 6. 30 (15일간)	7. 22~ 8. 1 (11일간)	
개최국 및 개최지	이탈리아 로마	일본 동경	이스라엘 텔아비브	서독 하이델베르크	캐나다 토론토	네덜란드 안헴	미국 뉴욕	영국 엘즈버리	서울
대회공식명칭	Olympics for the Disabled	Paralympic	Olympics for the Disabled		Torontolympia	Olympics for the Disabled	1984 International Games for the Disabled	The 7th World Wheelchair Games	
참가국및선수	참가국: 21개국 참가선수: 400명	참가국: 22개국 참가선수: 378명	참가국: 29개국 참가선수: 750명	참가국: 41개국 참가선수: 1,000명	참가국: 42개국 참가선수: 1,560명	참가국: 42개국 참가선수: 2,500명	참가국: 44개국 참가선수: 1,800명 입원: 700명	참가국: 41개국 참가선수: 1,064명 입원: 330명	
하계올림픽지	이탈리아 로마	일본 동경	멕시코 멕시코시티	서독 뮌헨	캐나다 몬트리얼	소련 모스크바	미국 L. A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경기장 활용 • 대통령 영부인 참석 • 교황치사 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경기장 활용 • 황태자부부 및 황후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개최국인 멕시코의 준비미비로 이스라엘에서 유치 • 이스라엘대학 경기장 활용 • 수상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장 새로 건설 • 대통령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은 대회 개최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척추장애자는 일리노이주, 일반 장애자는 뉴욕주에서 개최 계획이었으나 준비관계로 척추장애자는 영국에서 개최됨 • 레이전대통령 명예회장 • 영국 황태자 참석 		



'85 International Stoke Mandeville Games 경기장 배치도

신축되는 시설일수록 사후 활용방안이 계획 당초의 전제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경기장 내에는 이 밖에도 약 300평 규모의 Beer Tent (Social Tent), 프레젠테이션, VIP용 Tent, Friendship Tent, 그리고 간이화장실, 우체국, 보장구수리 텐트 등이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부대시설들이 대회 이후의 철거를 전제로 간이식으로 설치되어진 점은 매우 합리적이라 하겠다.

2. '84뉴욕 장애인 올림픽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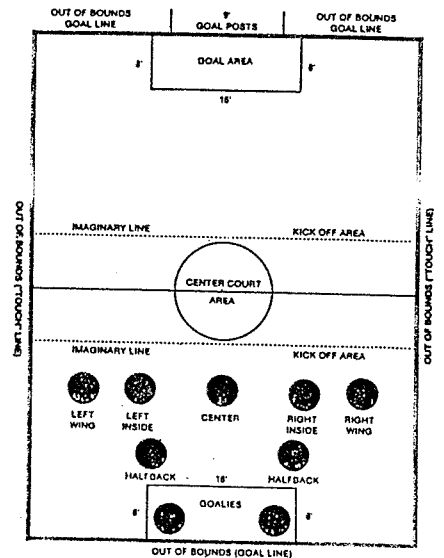
이 대회는 1984년 6월 16일부터 보름간 미국의 Nassau에서 개최되었는데, 총 18개 종목에 걸쳐 45개국으로부터 참가한 900여명의 인원과 시각, 뇌성마비, 절단, 소아마비 등의 장애를 가진 1천 8백여명의 선수 등 총 2천 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최초로 IOC 승인하에 올림픽 오륜기가 게양되었던 뜻깊은 대회였다.

미셸공원, 아이젠하워공원, 호프스트라 대학, 낮소지방대학 등 2개의 공원과 2개의 대학시설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모든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주경기장으로도 함께 이용된 육상경기장은 미셸공원 내에 타탄트랙을 설치, 트랙경기를 실시하였고, 관람석은 파이프와 철골을 이용한 조립식 스텐드를 경기장 양쪽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공원의 잔디 위에서는 양궁과 필드경기가 이루어졌다. 수영, 탁구, 배구, 농구, 역도, 골볼 등 실내경기는 모두 대학 내의 실내경기장에서

있었다.

- 펜싱경기 - 휠체어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4개의 포스트(post)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관중석이 없고 실내가 매우 협소한 것으로 보아 펜싱훈련장으로 쓰이던 곳이라 여겨졌다. 국제펜싱경기연맹이 규정하는 채점기 및 시설을 갖추었다.
- 사격경기 - 공기총 전용 사격연습장으로 사용되던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전광판은 없고 단지 사대가 7개인 협소한 곳이었다.
- 보울링경기 - 6개의 lane이 설치된 실내전용보울링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lane의 표면은 화학섬유의 일종인 이크릴 카베트종류로 시공하였으며, 각 lane마다 수동식 스코어보드(score board)를 벽면에 부착하였다. 보울링장 밖에는 사교장과 유사한 휴게실이 부설되어 있는데 이는 보울링 센터를 일종의 사교장으로 활용하는 영국식에 기인하는 것 같다.
- 숙박시설 - 각종 경기시설 이외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것중의 하나로서 숙박시설을 들 수가 있었는데, 이 대회기간동안에는 Ludwig Guttman Sports Center 내에 위치한 약 460명

수용규모의 신체장애인 전용숙사를 선수촌으로 활용하였다. 이 숙소는 원래부터 장애인전용 건물로서 단층의 경량철골구조로 되어 있는데, 건물내외의 서큘레이션(Circulation) 뿐만 아니라, 현관, 복도, 화장실, 기타 제반 소요실 및 1실당 약 20명 수용 가능한 침실 등 시설적인 면과 조명, 건축재료, 색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건물이다. 또한 주경기장과 매우 근접하여 별도의 교통수단 없이 자유로이 숙사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 대회기간 중 선수들에게는 대단히 편리한 숙소였다. 평상시 이 건물은 병원건물의 일부로서 척추장애자를 위한 병동으로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환자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 대회가 개최되므로 선수용 숙박시설로서 이용도가 높다는 점은 '88 서울대회를 앞두고 시설활용계획을 위해 매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회 이후의 시설활용방안에 대한 명확하고 세밀한 계획이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더우기 새로이



휠체어 사용자의 축구경기장 구조

치루었는데 특히, 호프스트라 대학교의 실내수영장은 50m, 8 레인을 갖춘 국제규격의 수영풀로서 사이드라인(side line) 한쪽 면에 스텐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주경기장인 육상경기장을 중심으로 보조경기장, 선수촌 및 기타 모든 부대시설들은 상호 연결 가능하도록 1마일 이내에 설치되었는데, 미셀 공원의 북쪽에 설치된 올림픽광장에는 응급치료시설, 보장구, 수리센터, 정보센터, 티켓 판매소 등이 마련되어 있었고, 인근에 설치된 대형텐트(Social Tent, Souvnenir Tent)에는 사교장, 전자오락실, 우편시설, 은행, 전화시설, 기념품판매소, 종교집회시설 등이 갖추어졌다.

주경기장 주변에는 특히 일반인 및 장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5개의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었고, 호프스트라 대학내의 학생 휴게실은 영화관으로 활용, 참가자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선수 및 임원들은 전원 호프스트라 대학교 시설을 선수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선수촌에는 5동, 12층 건물로서 1~2인이 1실을 사용하는 기숙사와 4백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식당지하에 우편시설, 구내매점, 기념품 상점 등이 위치하였다. 기숙사 내에는 1개층에 2개의 변소와 세면 시설이 되어 있었고, 숙소, 화장실, 욕실 등은 휠체어 사용자들의 이용을 위해 문 대신 side rail 장치를 하였다.

또한 버튼이나 수도꼭지는 절단장애자라도 밀기만 하면 물이 나오도록 장치되었으며, 샤워장에는 지체장애자가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의자시설을 마련하였다.

기숙사와 식당으로 진입하는 길은 모두 램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기숙사 문은 자동문으로 하였다.

경기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내버스까지도 모두 휠체어 승강기가 부착되었으며, 휠체어 승강시간 단축을 위해 별도의 승강기 없이도 직접 버스 문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임시 램프를 정류장마다 설치하였다.

이 대회는 경기운영면에서는 다소의 불편과 차질이 있었으나 시설면에서는 경기장, 숙소, 식당 및 쇼펍센터나 관광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장애자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또한 기존시설을 훌륭히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루었다고 할 수 있다.

3. 제21회 일본신체장애자 스포츠 대회

이 대회는 동경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64년 이후 매년 일본전국의 현을 순례하면서 계속 개최되어 왔으며 21회 대회는 1985년 11월 2일부터 2일간 롯도리시에서 거행되었다.

선수 약 1,100명, 임원 및 관계자 약 1,400명 포함 2,500여명이 참가하여 육상, 수영, 궁도, 탁구, 농구, 야구, 배구 등 7개 경기종목에 대하여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42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현에서 운영하는 운동공원내의 시설, 지역 체육관, 학교시설 등 모두 기존시설을 이용하였다.

대회의 주경기장 및 육상경기장으로 사용된 관람석 3만석 규모의 후세 육상경기장은 1984년에 완공된 것으로서 종합운동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 51ha의 부지를 가진 이 운동공원은 이외에도 야구장, 2개의 보조경기장, 투척장, 광장, 주차장을 갖춘 대규모였다.

한편, 경기장 내의 장애자를 위한 모든 편의시설, 선수대기실, 각종 봉사활동을 위한 시설, 화장실 등은 모두 이번 대회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간이시설들이었다.

경기장 주변에는 “만남의 광장”이란 명칭의 Social Tent를 설치하였는데 이곳에서는 각종 지방민속춤, 수화극 등의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그의 장애자들의 작품전시장, 의료보장구 전시장 및 각종 기념품 판매장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이상에 소개한 최근의 몇몇 장애자스포츠 대회를 통하여 볼 때 비록 각각의 대회에 대한 개최국의 사정이 다소 다를지라도 몇가지의 사항 즉 주경기장의 위치와 주변환경, 선수용 숙박시설, 교통문제,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해 주목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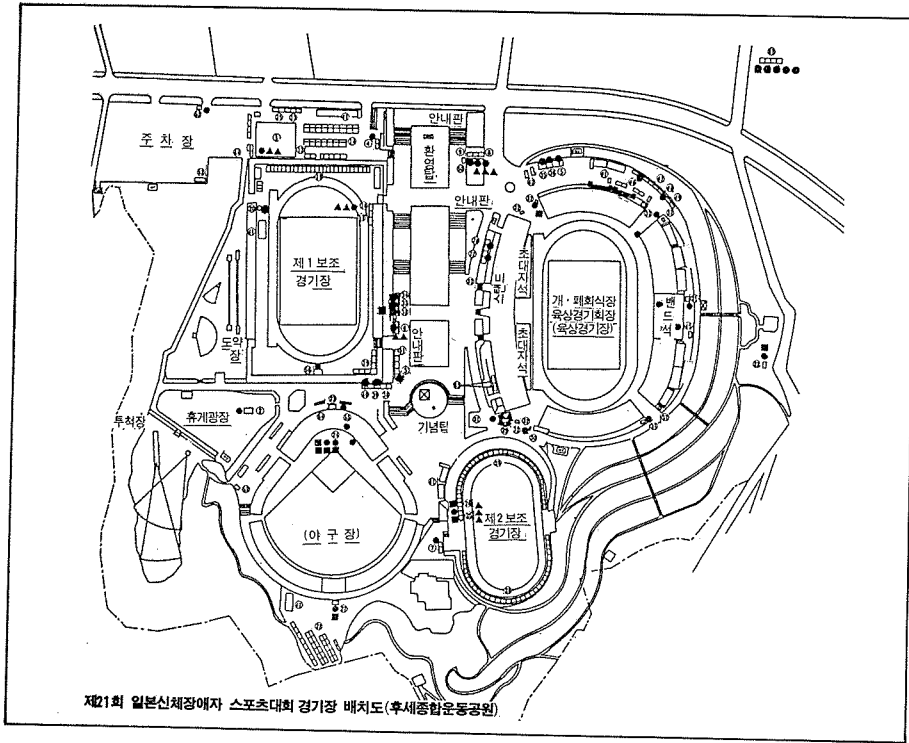
그것은 첫째, 공통적으로 올림픽 주경기장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근교의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보조경기장(기존시설)을 두어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메인스타디움(주경기장)은 동선처리가 거의 평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자에게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수직동선 즉, 계단이나 리프트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회진행을 매우 편리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넓은 잔디 관람석, 각종편의시설과의 연결, 조립식 임시스탠드 등의 설치 등은 위치상 도시 내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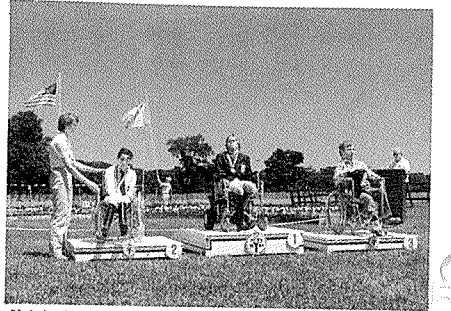
두번째로 선수용 숙박시설을 볼 때 우선 각 경기장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차량 등, 교통수단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장애자의 이동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대회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회 이후의 장래에 있어서 시설의 이용도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병원이나 대학의 기숙사 등 기존시설의 활용 혹은 대회 이후의 시설의 활용방안이 당초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특히 건축 및 도시환경에 있어 거의 전무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존 도시환경조건의 이유로 주경기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또한 가까운 곳에 대처할 수 있는 마땅한 기존시설이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대회기간동안에 이용될 각종 시설의 위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어차피 일정한 간격으로 차량의 운행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일반차량을 개조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일반도시교통 체계와 대회진행을 위한 교통대책이 가급적 상호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대회기간 동안에 필요한 각종 편의 및 오락시설, 사교장 등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고정시설물 보다는 텐트류와 같이 간이식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대폭 개보수하거나 하는 것은 장애자를 위한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는 결코 틀린 일이 아닐 것이나 단기간만의 대회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간이식설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설의 건설 당시에 장애자의 이용을 고려,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의 낭비 또한 막을 수 있는 일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동차에 부착된 카리프트(Car Lift)를 이용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하는 모습(International Stoke Mandevilk Games)



휠체어 사용자로 특별히 제작된 시상대에서의 시상식 광경 (New York 장애인올림픽 대회)

1 얼마남지 않은 '88장애인올림픽 서울대회를 앞두고 이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는 세계도처에서 참가하는 장애자들이 대회기간 동안 이용하게 될, 각종 시설에 대한 정비 및 개선책이 당연한 중요과제이다. 여기서의 각종 시설이라 함은 비단 스포츠경기를 위한 실내의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참가선수 및 임원용 숙박시설은 물론 시내 주요관광 시설, 레크레이션, 쇼핑시설 등 이용가능한 시설이 모두 포함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개략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체육시설

기존 체육시설을 대회기간 중 사용하게 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경기장 외부로부터 관람석에 이르기까지의 어프로우치 문제, 건물내부에서의 서클레이션(Circulation), 관련편의시설의 부족, 기타 외부 공간과의 단차(段差), 특히 휠체어 사용자의 기존 관람석 이용문제 등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특히 대회기간 동안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을 장애인 올림픽의 주경기장으로서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는 위의 열거한 사항 이외에도 관람석과 그라운드와의 단차가 매우 심하여 상호간에 장애자의 이동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장애자를 위한 관람석 및 응원석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각종 편의 시설과의 동선이 멀어지거나 혹은 경기장

밖에 설치해야 될 경우 이용상 대단히 불편한 점, 대회기간 동안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및 그의 이용이 매우 불리한 점, 그리고 각국의 참가인원수에 비해 경기장 규모가 너무 클 것이라는 점이 문제시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 각각이 당연히 장애요인이 되는 것들로서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별한 해결책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바 외국의 스포츠대회의 실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이번 대회만을 위하여 기존 건물의 개수 혹은 보수를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인스포츠 대회의 특성상 대회의 대부분이 동선상 평면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대회기간 중에 이용하게 될 대상시설의 선정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필요한 편의 시설을 가급적 텐트나 간이 이동식으로 대체시키는 방안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대회 이후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대처 방안이 장애자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해결책은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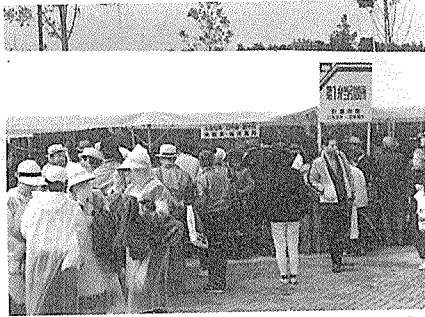
● 공원시설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금만 더 시설적인

배려를 한다면 장애인들도 충분히 안심하고 이용가능한 것으로 본다. 특히 문제시 되는 것으로는 우선 공원 정문까지의 접근성에 관한 것으로서, 횡단보도상의 신호감지장치, 유도장치, 차도와 보도와의 단차, 노면의 굴곡 등에 대한 해소 및 보완, 그리고 전시관, 박물관, 기념관 및 위락시설 등 공원내의 각종시설에 있어서 입구부분의 단차해소, 경사로의 설치가 요구되며, 기타 판매대, 벤치, 화장실 등 각종 설치물에 대해 장애자의 동작 특성과 필요공간의 척수에 적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장실 및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방법이나 위치, 공원내 안내를 위한 표시·표식 등은 기본적으로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서 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 호텔 및 백화점

타 편의시설에 비해 비교적 건물내부의 동선이 복잡하며 형식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곳이므로 지체장애자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자에 대한 안내 표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호텔 저층부 및 백화점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위주의 수직동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혼잡할 때에는 일반 엘리베이터의 이용조차 불가능하다. 그리고 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반드시 장애인 전용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며 이



메인스타디움주변에 간이식으로 설치된 편의시설(일본신체장애자)



회전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전혀 이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폭발사용자조차 힘들다.

경우 자동문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밖에 통로, 판매대간의 간격, 프론트 데스크, 클로크, 각종 카운터 등은 그 소요치수 결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폭의 확장 혹은 높이의 하향 조정 등 재고의 여지가 있다.

● 교통시설

현재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지하철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는 전혀 이용이 불가능하며 하지장애자조차 이용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장애자 전용 엘리베이터(계단 Lift) 유도블럭, 맹인용 점자안내 등의 설치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이용을 위한 장애자용 지도를 별도로 발간하여 사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격차가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이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지라도 이를 체념하기 보다는 각종 안내표지, 난간, 조명, 군데군데 유도블럭 등을 설치하고 램프 등을 갖추는 등 비교적 용이한 것에서부터 개선 및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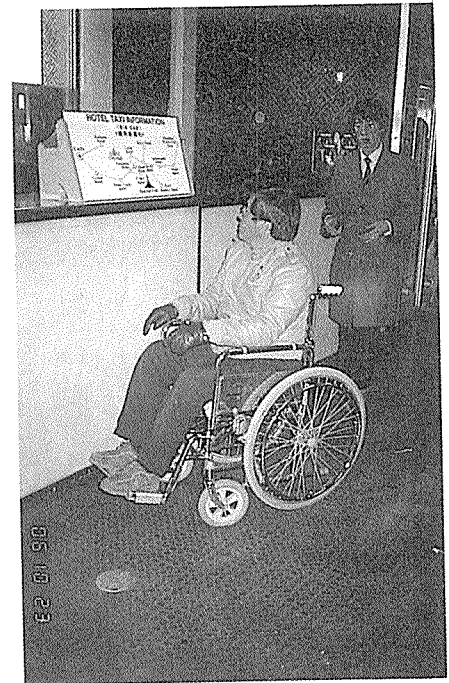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장애자에 대한 기존시설의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은 실로



반기주변에 난간이 설치된 예, 장애자 전용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이 요구되며 수평 및 수직난간을 함께 설치한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리만큼 많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그동안 제반시설에 있어,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애자를 위해서 어떠한 시설적인 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 이용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즉 램프와 경사로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건물의 내외부를 통한 전체 서큐레이션이 가능할 때만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출입문이 자동문이라든가, 카운터나 전화박스의 높이가 낮아든가, 전용화장실, 전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곳까지 접근할 수가 없거나, 혹은 다음으로 연결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 전체 동선의 흐름이 불가능할 때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차」에 있어서 정상인에게는 결코 문제시될 수 없으며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이러한 「단차」가 장애자의 「공통의 적」임을 재삼 인식하고, 비단 '88장애자 올림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장애자를 위한 시설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② 날로 변화해가는 생활환경의 도시화, 고도화는 개개인에 있어서도 동일한 능력을



판매대, 카운터, 전화박스 등 각종 설치물들은 장애자를 고려할 때 높이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요구하는 반면, 장애자에게는 스스로가 생활환경에 대한 핸디캡이 점차 큰 장애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 자립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하게하고 만다. 아울러 사회로부터의 소외 또는 무시도 또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초래한다. 장애자들은 가정이나 시설 또는 일정지역을 벗어나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함께 생활하고 싶어하나 우리 정상인에 의한 심리적 물리적 제조조건들은 모든 방면에 있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 비록 어떠한 자가 신체에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해 갈 수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자는 장애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88장애자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단순히 성공적인 대회 개최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의 장애자에 대해 무관심에서 탈피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장애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값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승화시켜야할 것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자의 두 다리와 우리 정상인의 두 다리의 차는 인간으로서의 결정적인 차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점을 새삼 강조하면서 '88서울올림픽 대회를 위한 제반 노력이 올바른 진로를 향하기를 바랄 뿐이다.